

2020 謹賀新年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돌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7)

新年辭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영신예배를 드려

‘송구영신’은 원래 ‘송고영신(送故迎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송고영신’은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관은 이전의 관리를, 신관은 새로 부임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것처럼,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쓴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자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탄축하예배 다음으로 송구영신예배를 드려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6:7~8).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2020년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전쟁에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귀인(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를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시146:3)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집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146:5).”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 지영신학교 총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 애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일어설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을 사시며 이 땅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며 추락한 한국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회복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도와주신 예언자들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2020년 새해에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주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임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의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고 혼탁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화합하고 연합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에 핵위협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살롬의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말씀에 본질을 둔 교회로 회복되어 진리이신 말씀을 마음에 믿고(believe) 그 말씀 의지하고(trust) 그 말씀에 순종하는 obey) 바람직한 믿음으로 교회의 본질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2020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새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新年辭

저의 신문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암울하지만 합니다. 2020년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언론이 힘을 합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애용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국가를 살리실 것이요 이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괴뢰 미치광이 집단은 핵 포기는 없습니다. 아차 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쓸어버릴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붉은 사상의 바이러스가 정치인들은 물론 공정한 잣대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정부와 국회 사법부까지 감염되어 있는지 정의는 없습니다.

미 7:2-3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함하니” 하였습니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듯 뒤죽박죽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많은 교도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수법 통과로 엄청난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진실을 알릴 의무를 다해야 할 언론들, 최일선 핵심종재이며 정론 집필자로서 공정 보도를 실천해야 할 일부 언론이 고질

적인 붉은 사상에 오염되어 진실은 없고 날조된 허위보도에 국민을 기만하고 편파보도를 한 지 2년이 넘어 발행인 정기남 목사 가슴이 아프다 못해 역책이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언론은 나라의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 할 책임을 갖고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기 위하여 제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각 교단 총회장, 기관장들이 제발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0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부흥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이사 여러분들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세계를 향한 문서선교에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선교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가슴이 아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예장합동(보수) 2020 신년하례 공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총회”(레 11:44 - 45절)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목회대학원장

직전 총회장

총 회 장

부총회장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 계

부회계

총 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천복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전록 목사
연약교회



강치현 목사
밀알교회



김주현 목사
빌립보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일 시 : 2020년 1월 9일(목) 오후 2시 신년하례
장 소 : 동천교회(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 시무)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전 화 : 02)854-1326, 010-7474-3173
참 고 : 오전 12시 식사, 오후 2시 신년하례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한교총 대표회장 신년 메시지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2020년 새해 아침

할렐루야!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성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혜를 모아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동족상잔의 6.25한국전쟁 70주년,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기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외의 원 총선거를 통해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선교부들이 주도하여 연합운동에 힘썼으나,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파와 교단 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경쟁과 분열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연합의 이름으로 분열되는 아픈 결국 한국교회의 리더십에 큰 해악이 되었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에서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탱해온 교단들이 연합한 우리 한교총은 회원 교단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자 연합하여 동거함"을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 세계선교 운동을 계속하며, 다문화 이주민 선교와 저출산 해소, 다음 세대 교회를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 포럼, 가칭 근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마을 음악회와 부활절 퍼레이드 등 기독교 정신과 문화적 지평을 확대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사회갈등의 원인자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

화해와 동역의 소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지도자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초 갈등 국면에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을 열어가자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에워섬을 당하여 고단한 지경에 이르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이념적 대립으로 초 갈등 국면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까지 편을 지어 갈등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초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해에는 화합하며 단결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념적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반을 이룬 사상적 기반을 뒤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국민의 화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간접 민주주의의 특성을 살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평범한 국민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게 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갈등을 해소되고, 평화롭게 화합하며, 미래를 열어가는데 손을 맞잡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화합의 정치, 평화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웨신 신년사

본지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
예정웨신교회 총회장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웨신총회의 희망에 찬 미래를 함께 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130년을 넘어서 한국교회 역사에 웨신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복음의 선지자들입니다. 도시와 시골, 오지산간부터 해외까지 평생

을 주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족한 제가 웨신총회의 총회장으로 취임하여 가장 먼저 하고자했던 일은 단합과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신은 품위와 품격을 지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으며 오해와 분열을 넘어 한국교회에 가장 모범적인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온 목회자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이제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의 산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웨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단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다한 총회원이야말로

한교연, 2020년 신년사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새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모두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위대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잡3:18-19)

대한민국은 위대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자유를 사랑하는 우방 덕분에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여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교연, 2020년 신년사

김현수 목사
종교개혁교회 담임, 웨신 부총회장,
기독교장제(부활)문화연구원 원장

주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애독자 여러분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2020년의 새해가 밝았기에 마음 설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현장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매우 험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려와 격정이 아니라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밝혀주는 지저스타임즈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사실은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적 · 물적 · 양적인 복을 자신의 영달과 정욕에 사용함으로 화합 대신 나누어 갈등하고, 권력과 아합하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되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1:29)는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은혜 입은 것을 갚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믿는 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신론과 타락 문화가 그 어느 해보다 거센 바람이 되어 불어닥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위정함을 깨달아 기도원과 전국교회에서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 앞에 소리높여 절규하며 비상 기도를 울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초원을 누비며 살다가 마치 거대한 동물원에서 갇혀 주는 것만 먹으며 길들여지는 짐승처럼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역사의 물레를 돌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사각오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하는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보시기에도 좋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생명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벽하며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저스타임즈를 통하여 또는 전 세계 500만 명이 넘는 애청자들이 시청하는 JTN TV 방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사 지면 신문과 JTN TV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 부사장 발행인 등과 전국에서 편지를 갖고 닭으며 정론 잡지에 전면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며 크고 작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이며 사역자들입니다. 이미 2020도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밀알입니다. 희생과 눈물로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서 2020년에는 커다란 열매를 맺도록 다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무리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희망과 소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울림을 주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날에 그런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총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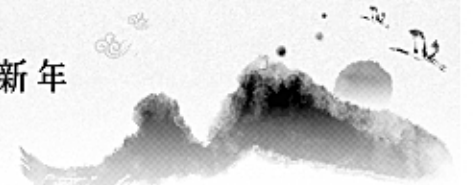
올해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기도가 꼭 필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는 금식하며 홍익의 결박을 벗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홍익의 결박을 풀어 주며 땅에의 줄을 풀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땅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

2020년 새해에는 교회의 본질 회복, 건국 이념의 회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함으로 남북이 자유 가운데 삼합(화합·연합·통합)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참다운 인권이 실현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여, 두려워 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남북이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의 씨를 심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 내로남불식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리 앞에 바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謹賀新年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 이종진 목사 이사: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 장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2020 謹賀新年 축복을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포어 : 좋은만남 행복만성도 (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서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무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쪼여지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전로 기도으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수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부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용곡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양기(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 과정 : 신앙, 운동, 위생,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20 포어
전도와 선교하는 창해

-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한국교회가 전하는 ‘따뜻한 국밥 한그릇’

지난 12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영하 20도의 추위가 살을 파고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마을까지 추워진다. 이럴 땐 따뜻한 말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림자다. 이런 연말, 바쁘다는 핑계로 놓쳐버린 일들이 많다. 그중에 서울역이나 시청지하도에서 또는 달동네 방방에서 겨울을 나는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도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길바닥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눔 용기와 가슴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에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지난 13일 ‘불금’이라 불리는 저녁,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국밥’ 행사가 열렸다. 이 일은 1992년부터 끊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무료급식과 숙소를 제공해온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이사장 신석출)과 한국교회를 섬겨온 목사님들과 실무자 사무총장 등 한국교회 브레인들이 나선 것이다.

한국교회 섬김운동본부(약칭, 한교섬)는 2003년부터 16년동안 ‘노숙자 침낭전달하기’와 ‘홀사모 김장김치나누기’ 등 여러 모습으로 이름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남모르게 봉사해 왔다. 한 때는 ‘한국기독교 섬김운



동본부’(대표 박상훈 목사)라는 이름으로 조식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국교회 섬김운동본부’로 이름을 변경하며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단계로 거듭났다. 매서운 추위로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교섬의 ‘따뜻한 국밥 한그릇’은 한국교회의 섬김 회복운동이다. 매년 영동포 노숙자나 서울역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한다는 것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미담이다.

이런 섬김 회복운동의 주요 멤버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승한 목사,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과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광수 사무총장, CBS기독교방송 윤기화 이사,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 미래목회포럼 박병득 사무총장, 고려대의과대 임창섭 교역 등이 참여하였다. 금년은 화성 섬기는 교회(담임 김종수목사)의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배식에 함께 하여 500여명의 식탁 봉사를 도왔다.

이날 식사에 앞서 이효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찬양대의 찬양 후 신광수 사무총장이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병이여가 살아나는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사회가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기를”기도 했다. 화성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는 ‘믿음으로 삼시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연이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진다”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힘찬 세상에서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전했다.

이승한 목사의 축복기도가 있은 후 참석자들은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만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의 억울한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주므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식탁이 되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섬김운동본부’(02-744-5004)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이효상 원장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역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교회가 ‘한교섬’을 통해 전하는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서로의 용기를 나누며 섬김을 회복하는 ‘발벗고’라고 평했다.

교회건강연구원, 새해 청지기 제직훈련 세미나 연다



▲ 주강사: 이효상 목사, 정성진 목사, 허영모 목사

청지기 제직과 그 훈련의 개념이 변했다. 교회에서 그동안 통용되던 제직의 개념은 종 또는 일꾼 등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수동적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능동적 개념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일하기 위한 ‘팀웍’에 중점을 두는 것도 제직훈련이 강조하는 변화 중 하나이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사장 정성진 목사)은 20여 년간의 청지기 제직훈련의 노하우를 담은 ‘나이를 집사와 성전의 기둥같은 제직’을 출간하고, 출간기념 세미나 겸 새해 청지기 제직훈련 세미나를 2020년 1월 16일(목) 서울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층에서 연다. ‘기둥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금번 세미나는 주강사에 이효상 원장(교회건강연구원)이 ‘청지기 제직을 세우는 목적’을,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성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의를 한다. 이를 통해 청지기 제직훈련은 ‘교회의 건강성’과 ‘동역자’로서의 사명 감당이 중요함을 깨우친다.

이사장 정성진 목사(양산 삼암교회)는 “이제 팀웍이다. 최근 건

강한 교회들의 유형을 보면 팀웍이 좋다는 것이다. 팀웍이 좋다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일하는 동역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청지기 제직훈련’ 목회’인데, 전국교회의 직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초청의 이유를 밝혔다.

청지기 제직훈련 세미나의 참가 대상은 직분자(장로, 권사, 집사, 관할, 기관임원(구역장, 목장, 속장) 목사(광 대평양교회)가 ‘총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의한다. 이를 통해 청지기 제직훈련은 ‘교회의 건강성’과 ‘동역자’로서의 사명 감당이 중요함을 깨우친다.

장점이 있다. 주강사 정성진 목사는 “제직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런 공감 이 일을 하는 원동력을 끌어내고 성장하는 교회로, 목회자와 동역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목회자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교인들과 함께 짐을 지는 시대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목회자 중심에서 교인들과의 동역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동역이고, 팀웍”이라고 강조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 제직세미나는 ‘훈련’이라는 첫 단추를 통하여 2020년 새해를 여는 장이 될 전망이다. 참가신청은 연구원(02-747-8291), 홈페이지(www.ucts.co.kr)행사참가란, 문자(010-3171-6094)로 할 수 있다.

월드비전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드려

2019년 은퇴식 김영철 목사 목회 30주년 축하식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에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드비전교회(당회장 김영철 목사)에서 지난달 25일(수) 오후 3시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와 2019년 은퇴식 및 김영철 목사 목회 30주년 축하식을 갖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가졌

다. 1부 예배에 담임 김영철 목사 인도로 시작되어 이경희(상도중앙교회)장로가 기도, “성경봉독에 (마 2:1-12)김복득(문명교회)장로가, 월드비전교회 연합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김삼환(명

성교회 원로)목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2부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은퇴, 집사, 권사 은퇴, 이명천 장로의 답사로 은퇴예식에 이어 3부 입당 감사에 건축 경과보고, 공로감사패 증정, 4부 김영철 목사 목회 30주년 축하, 5부 축하 및 격려에 김태영(총회장/백양로 교회)목사와 9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오정호 장로, 용덕순 목사, 장학봉 목사 등이 축사했다. 이어 이동명, 한민권, 김정아, 우수연 4총창, 월드비전교회 어린이합창단 등의 축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날 김영철 담임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행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오랜 기간 저와 우리 교회 당회는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성전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을 작정하지 않았고, 모든 성도가 오직 기도에 힘써서 헌신한 열성을 다해 그 누구도 성전건축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입당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월드비전교회는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인 새 성전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새 성전의 시대를 힘차고 역동적으로 열어갈 것을 약속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을 더욱 개방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역량을 펼쳐갈 것을 다짐하며 인사를 하고 입당예배 준비위원장 김광희 장로 알림 김순권(중경총회장/경천교회 원로)목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제120차 연말 섬김과 나눔 예배 및 나눔 행사 열여

손경희 게그쇼 및 어르신들께 선물전달



리신 선물전달 이날 참석인원은 300여명 참석이 참석하여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다. 3부는 자리를 옮겨 믿음교회(배정희 목사)에서 “성령대방회”를 정식 미추홀구청장, 정문준 BNB치과원장이 하였다.

표 박무평 목사의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20kg 쌀 나눔과 고구마 나눔을 하였다. 이날 지역교회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섬김과 나눔에서 제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회고를 나누었다. 인천지사장 박영민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www.mokpodream.org

나부터 2명 이상

전도는 생명의 사랑

2020 새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 축복 받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요셉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찬양예배(일) 저녁 7시30분

새벽기도회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금) 저녁9시

오후기도회 오후3시/저녁기도회

저녁9시/새벽기도회 새벽4시30분

주소: 전남 목포시 상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277-0496

차량운행: BUS 3번, 60번, 600번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1:1)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무안군 삼합읍 남악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현주안교회: 목포시 용현리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061-277-6891

■ 靑松 건강칼럼 (723) 헨델의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Handel's Messiah)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러 교회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공연한다. 연세대학교교회(Yonsei University Church)도 '헨델의 메시아(MESSIAH, Handel, HWV 56)'를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Christmas Eve) 저녁 7시에 루스 채플(Luce Chapel)에서 공연했다. 정중훈 담임목사(연세대 교목/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공연이 막을 올려 밤 10시경까지 계속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 부부도 재미있게 관람했다.

음악회 지휘는 김혜옥(전 연세대 음대 교수) 교회성가대 지휘자 겸 삼태자 듀(Chantez a Dieu)합창단 음악감독이 했다. 특별출연에는 연세대 음대 출신인 소프라노 최혜경, 카운터테너 장정권, 테너 류성수, 바리톤 박주성 등 솔로리스트 4명, 합창은 연세대학교교회 성가대와 삼태자 듀 합창단이, 그리고 바흐솔리스트들이 협연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andel)은 1685년 독일 할레(Halle)에서 태어나 1759년 영국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다. 헨델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더불어 바로크(Baroque)시대의 가장 뛰어난 음악가였으며, 오늘날 서양음악의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음악의 어머니'로, 그리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로 일본과 한 출판사가 이름을 붙였다.

바로크 시대는 당시 유럽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된 시점이다.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이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바로크 시대는 음악이 발전하는 토대가 변화되었다. 즉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음악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졌다. 바로크 시대는 오페라의 탄생 혹은 발전한 시점인 1580년부터 바흐가 죽은 1750년까지를 일컫으며, 음악적 특징은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였다.

헨델과 바흐는 독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났다. 두 사람의 음악적 특성을 매우 달라 바흐는 정교하고 차분한 종교 음악을 위주로 작곡하였고, 헨델은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의 대중음악과 무대 음악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백내장(白內障)으로 고생하다가 존 테일러라는 의사에게 받은 수술과 부작용으로 실명(失明) 후에 사망했다는 이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헨델은 9세 때부터 오르간 연주자인 차하유에게 사사하여 작곡의 기초와 오르간을 공부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한때 할레대학에서 법률을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 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지저스타임즈 논설위원 고문

공부하였으나, 18세 때 함부르크의 오페라극장에 일자리를 얻어 이때부터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20세(1705년)에 오페라 알미라(Almira)를 작곡하여 성공을 거두고 이듬해 오페라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가서 활동했다.

헨델의 오페라는 대부분 이탈리아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기에 당대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헨델은 오라토리오도 작곡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음악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창작이었다. 1720년대 영국 음악 시장에서는 기존 문화 소비자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수준을 대중화한 영어 작품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메시아'는 영어로 쓰여진 대중적 형태의 작품이다.

헨델은 오페라 작곡가로서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오페라단 운영 문제로 골치를 썩곤 했으며 결국 오페라 극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 1741년, 곤경에 빠진 헨델에게 아일랜드(Ireland) 더블린(Dublin)으로부터 '자선 음악회' 제안이 들어왔다. 그 제안은 헨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음악작품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헨델은 더블린의 음악회를 위한 새 작품으로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를 선택했다. 오라토리오(Oratorio)란 종교적 주제에 의한 극적 형식의 성악 음악곡으로, 주인공들이 무대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지 않기에 제작비 부담이 적었다. 오페라 공연으로 파산을 겪은 헨델로서는 오라토리오에 그의 장점을 보여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헨델은 1741년 8월 22일에 영국 런던

의 자택에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곡에 착수하였다. 헨델의 작곡 속도는 놀라워 메시아 제1부를 6일 만에, 제2부는 9일, 제3부는 3일 만에 완성했고, 관현악 편곡 작업은 2일 만에 끝냈다. 이에 9월 14일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완벽한 악보로 탄생했다. 연주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대작을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메시아'를 완성한 후 헨델은 "신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만 같다"고 말했다. 헨델의 '메시아'가 초연되던 1742년 4월 13일, 더블린의 뮤직홀은 물려든 청중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600석의 공연장에 700여명이 끼어 앉아 '메시아'를 관람했다고 한다. 더블린의 언론들은 앞 다투어 헨델의 메시아 공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메시아'는 헨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일반인들에 가장 친숙한 음악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부활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기에 굳이 성탄절에 연주되어야 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헨델 자신도 부활절(復活節)을 염두에 두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메시아를 성탄절에 연주하는 관습이 있어 오늘날 메시아는 성탄절과 연말에 공연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메시아는 제1부 예언과 탄생(Prophecy and Birth), 제2부 수난과 속죄(Suffering and Expiation), 제3부 부활과 영생(Resurrection and Immortality), 총 48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歌詞)는 신약의 복음서, 고린도서,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명상하며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의의를 찾고자 시도했다. 헨델은 메시아 악보(樂譜) 초판의 서문에 "신의 뜻이야말로 위대하다. 지식과 지혜의 보배는 모두 신께 있다."고 적었다. 음악학자 자크 샤이에는 "헨델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人子, Son of Man)의 영광, 신 자신의 영광의 찬가(讚歌)"라고 말했다.

메시아 제1부는 신포니아(서곡), 백성을 위로하라(테너 서창), 모든 계곡 메워지리라(테너 영창), 주의 영광(합창), 만군의 주 말하노라(베이스 서창), 주 오시는 날 견뎌낼 자 누구냐(알토 영창), 깨끗이 하시리라(합창, 알토 서창),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알토 영창 & 합창),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베이스 서창),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베이스 영창),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합창), 시실리아 목가(정원교향곡, 소프라노 서창), 보라 저 찬사가 그에게 나타나며(소프라노 서창), 갑자기 천군이 나타나서(소프라노 서창), 주께

영광(합창),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소프라노 영창, 알토 서창), 주는 목자요(알토, 소프라노), 그 명에는 쉼(합창) 등으로 이어진다.

제2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합창), 주는 멸시를 당하시고(알토 영창), 실로 주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합창), 주가 채찍 맞음으로(합창), 우리들은 양같이 해매이며 다녔네(합창), 주를 비웃으며(테너 서창), 하나님 뜻이면 구해주시겠지(합창), 조롱 받아 찢어진 가슴이여(테너 서창), 보라, 그분이 겪은 슬픔을(테너 영창), 산자들의 땅에서 격려하신 것은(테너 서창), 그의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시리라(테너 영창),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합창, 테너 서창), 모든 천사 주를 경배하리라(합창), 주님은 높이 오르셨네(알토 영창), 주께서 말씀하셨다(합창), 그 발길 아름다워(소프라노 영창),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베이스 영창),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합창, 테너서창), 저들을 깨뜨리리라(테너 영창), 할렐루야(합창) 등이다.

제3부는 주가 살아 계심을 나는 안다(소프라노 영창), 사람을 인하여 죽을 왔으니(합창),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네(베이스 서창), 나팔 소리가 울릴 때(베이스 서창, 알토 서창),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 나? (알토 & 테너 이중창), 하나님께 감사드리자(합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소프라노 영창), 죽임 당하신 어린양(합창), 아멘(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1750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을 했을 때 연주회에 참석한 영국왕 조지 2세(George II)가 제2부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Hallelujah,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창이 울려 퍼지자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끝날때까지 일어난 체로 들었다고 한다. 왕이 일어나서 모든 청중이 따라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면 모든 청중이 일어서서 듣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관례에 따라 연세대학교교회 루스채플에서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도 모든 청중은 일어나서 합창을 듣고 따라 불렀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다스리신다(Hallelujah!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The kingdom of this world i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리, 할렐루야!(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Hallelujah!)).

목양칼럼

『힘이 있어야 선(善)도 행한다』

한해가 저물어 올해 마지막 목양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해가 또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천지개벽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급박함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양 진영이 충돌을 들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서로가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소리친 한해, 종교마저도 이념으로 나뉘어져 버린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습니까? 돛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새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그만 독초를 먹고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절단나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며 미사일을 쏘아 왔고, 중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았습다. 저 멀리 미국의 트럼프는 말쑥한 매릴 터트려 왔습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착한 것처럼 보였습다. 강대국의 강성 지도자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대통령부터 성품이 모질지 못하니 정부도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착함은 자칫 무능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될 듯싶었던 미국마저도 자국의 이익에 합몰되어 한반도를 종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신뢰를 잃은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선포하고자 하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약한 선은 언제든 짓밟힐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더 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정신이 없습다. 누군을 뻔뻔한 일정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뻔뻔한 일정 속에서도 8개의 신년축복성회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는 31일날 저녁 10시부터 송년집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묵은 심령의 때를 벗기고 말씀과 기도로 새마음을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해 0시가 되면 영신예배를 드리고 신년소원예물을



소강식 목사
새에덴교회

드리며 교역자들의 안수기도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뽑아갑시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일을 하기에 힘이 듭니다.

성도들이 공평하게 부교역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가면 좋은 텐데 저에게 물려드니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10시 반부터 시작하고 싶었지만 버스 사정 때문에 또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속 신년축복성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약한 선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하니까 정부와 사회와 교계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제법 큰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다. 세상에선 나약한 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선도 행할 수 있고 복을 받아야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축복성회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장년여름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틀만 있으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저부터도 신년소원예물을 얼마 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이따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년의 축복을 위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심을 것입니다. 저도 내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축

2020 지저스타임즈 연부협 신년하례 공고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허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시 45:1)

이사장/총재

사장/명예총재

대표이사/상임대표

사무총장/대표회장

사무차장/은영이사



허창범 목사



소진우 목사



정기남 목사



곽명민 목사



은석희 목사

공사다망하실지라도 한분도 빠짐 없이 빚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2020년 문서선교 방송 신문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신년하례 장소 안내

- 일시 : 2020. 1. 31(금) 오전 11시
- 장소 : 예복교회 TEL : 02)934-1232(대) H.P 010-8753-7179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구/장암동)
- 오시는 길 : 전철 1호선 7호선 승차 도봉산역 하차 택시 약 7분 거리 =>
- 자가용 :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오셔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청라남현교회(김성집 목사) 임직 감사예배 드려

안수집사 임직 2인, 권사 임직 3인, 권사 취임 1인 등 임직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청라남
현교회(담임 김성집 목사)는 지난
12월 28일(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 7번길 소재에서 안
수집사, 권사입직, 권사취임, 등을
선정 입직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
다.

김성집 담임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기도예 낭송할 장로(서울남현교회 8기 임직자 대표), 성경봉독(요한계시록 2:10)에 봉독한 (인천남현교회)목사, 이어 이준복 목사(서울남현교회 원로)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2부 임직식 순서로 김성집 담임 목사는 임직자를 호명하고 먼저 임직자들과 이어 성도들에게 거수



로서 서약한 후 담임목사와 안수위원은 안수집사를 차례로 안수하고, 악수례를 가졌다. 김성집 목사는 이어 권사를 임직하고 임직자모두를 기립하게 하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공포한 후 임직패 증정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 순서로 송연환 목사(김포남

재간 목사(강서시찰장/한마음교회)의 축도로 임직 감사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청라남천교회 김성집 목사는 이청신, 박수남 씨를 안수집사로, 이훈하, 김영준, 박남주 씨를 권사로, 전순단 권사는 시무권사로 취임했다. 이날 임직을 받은 이들은 본 교회의 충성스런 일꾼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고 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청라남천교회 성도들과 임직자들은 서울남천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로서 화기애애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인천남현교회(봉지현 목사) 임직 감사예배 드려

장로 1인, 안수집사 1인, 권사 2인, 명예권사 1인 등 임직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인천남
현교회(담임 봉지현 목사)는 지난
12월 7일(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에 소재에서 장로
장립, 인수집사, 권사, 명예 권사
등을 선정 임직 감사예배를 드림
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
려드렸다.

답임 봉지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기도예 정인호 장로(서울남영교회 6기 임직자 대표), 성경봉독(누가복음 17:7-10)에 채병욱(성은교회)목사, 인천남영교회 성도들의 찬양에 이어 이준복 목사(서울남영교회 원로)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2부 임직식 순서로 봉지헌 답임
목사는 임직자를 호명하고 먼저
임직자들과 이어 성도들에게 거수
로서 서약한 후 답임목사와 안수
위원은 장로와 안수집사를 차례로
안수하고, 악수례를 가졌다. 봉지
헌 목사는 이에 권사를 임직하고
임직자 모두를 기뻐하게 하고 성
삼위의 이름으로 공포한 후 임직



패 증정과 장로 성의 착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 순서로 인천남현교회 최현숙 집사의 축가 플랫폼연주가 있은 후 송영환 목사(김포남현교회), 안태성 목사(천안 새누리남현교회) 등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 방준영 목사(황동노회장/신웅교회)가 축사를, 서울남현교회 색소폰선교단의 축가연주에 이어 조용호 장로(임직자대표)의 감사의 인사 및 광고하였으며 류재간 목사(강서시칠장/한마음교회)의 축도로 임직 감사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인천남현교회 봉지현

목사는 조용호 씨를 장로로, 봉경현 씨를 안수 집사로, 봉명옥, 정복자 씨를 권사로, 오창희 씨를 명예 권사로 임직하였으며 이들은 본 교회의 충성스런 일꾼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고 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겠다는 각오이다. 이날 노회 목회자들과 서울남현교회 장로들, 또는 성도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축하와 격려로서 화기애애한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에녹부흥방송 1주년기념 및 송년결산 제17회 에녹찬양제 열어

대상 이용하 목사, 금상 김희영 목사 김정숙 자매, 은상 최동준 목사

인터넷 전문방송 에누리방송
대표 촬영인 독사는 개방 1주년을
맞아 송년 찬양제를 열어 많은 기
부여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보였다. 대표 촬영인 독사는 환영
인사에서 지난 4년을 준비하고, 1
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황리에
송년 찬양제를 열어 너무 기쁘다
면서 이번 17회째 맞는 찬양제는
기독교 찬양문화에 조금이나마 기
여한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찬양제는 10월에 예선을, 11월에 본선을 통과 12월 결선에 올라온 총 7명 중 3명이 결경되었다. 대상에 삼금 50만 원과 상패를, 대상에는 삼금 30만 원들, 은상에는 삼금 20만 원을 수여했으며, 그밖에 지지스타입지에서 특별상으로 상패와 금일불을 시상했다. 따라서 출연진을 비롯 자리를 빛내준 내빈들을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에 열리는 에녹찬양제는 에녹부흥

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그 열기가 뜨거움을 느꼈다. 새해에도 더욱 기대되며, 1월 찬양제는 18일(토) 오후 2시에 본방송 이사인 믿음교회(배정희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대상자는 대상 이용하 목사, 금상 김희영 목사, 김정숙 자매, 은상 최동준 목사 등이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이사 배정희 목사 부군인 서보하 장로가 방송용 카메라를 기증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본 행사는 1부 예배, 2부 잔宴, 송년 결산으로 진행되었다. 이사 배정희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창20:17~24)이라는 제화로 설교를 하고, 축사에 한국의전 협동조합 회장 류재승 집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 지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가 나섰으며, 국제예복부흥회의 고문 이흥희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한편 심사 위원은 코아월드미션 이사장 이시온 목사, 찬양사역자 김학진 목사, 찬양사역자 세라임 김재환 집사 등이며, 총평에 찬양

사역자 강신숙 목사가 맡았다. 총
괄본부장 이선한 목사(영광교회)
는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는 등 화
기애애한 가운데 발길을 돌렸다.
인천지사 김영애 기자

인천지사 김영애 기자

피종진 목사초청 1월 국내·외 성회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피종진 목사

1(수) ~ 3(금)	서울 시온성교회(임후차 목사) ☎ 010-6231-7532 국민빈천부흥사회협의회 신년하례(대표고은 조용기 목사, 총재 고충진 목사) ☎ 010-3889-0691
4(토) 오전	세계기독교교령문화(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 010-7291-0291 장소: 서울 강서 JK브라운호텔
5(주) 오전	부천 통발교회(서기원 목사) ☎ 010-5615-3928
6(월) 새벽	임산산복음영산교회(강영선 목사) ☎(03)901-0191
6(월) 오후	오산리치화서기념교회(신재원 권경환 목사) ☎(03)947-0091
6(월) ~ 8(수)	대구 주안산유암원장 박진배 ☎(053)768-6205
8(수) 저녁	인천 청라주안중앙교회(박승준 목사) ☎ 010-8943-0682
9(목) 저녁	세종평화회의당(원장 피종진 목사) ☎(04)852-2111
10(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서대천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02)741-4370
11(토) 오전	인천 열림원영교회(박경준 목사) ☎ 010-8387-7088
12(주) ~ 14(토)	전주효동교회(이정기 목사) ☎(063)212-1007
13(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정영배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02)741-4370
13(월) ~ 15(수)	서울 예수로교회(이세은 목사) ☎ 010-3441-2997
20(월) ~ 22(수)	안산 설화산기도원(노베드 목사) ☎(04)531-0690
23(목) ~ 25(토)	창원민교회(미은혜 목사) ☎ 010-4586-9642
27(월) ~ 29(수)	순천 열리아기도원(원장 유소남 목사) ☎ 010-9063-0937
31(금) 철야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 ☎(031)5405-3197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

김 목사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 교회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한국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제언,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출산운동과 생명 존중사회를 위한 '생명존중의달'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건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목사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을 받았다.

김 목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한국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안전하게 돌보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목사는 또 “저의 영적 스승인 한국CCC 설립자 고 김준곤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김준곤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람’이라는 쉰손선교 전략으로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해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은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

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책, 생명존중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기독교 교육 정책, 남북 평화와 통일 정책 등을 제안을 계획"이라면서 "한국교회와 선거결과를 준수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http://jntv.kr>)에서 참고...

한 목소리는 한국교회 설립자 고 김준곤 목사의 총재특보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한국교계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SCS 대표특보, 세계성서문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illegible]

요한계시록 8장 강해(50)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1절) 어린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본문 1절을 읽을 때 어린양이 여섯째 인까지 떼는 후에 순서상으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데에 혼란과 오류에 빠져서 계시록이 닫히고 맙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환란의 전체 기간인 7년 동안 될 사건의 내용을 전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떼는 것은 환란이 시작해서 삼 년 반 안에 될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후 3년 반 안에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7년 환란이 끝난 것입니다.

0예언은 일곱째 인으로 일곱 나팔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여섯째 인 다음에 순서상 일곱째 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다시 환란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7년 동안에 될 사건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환란 날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언은 일곱째 인으로, 일곱 나팔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은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7년 환란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일곱째 인은 환란이 시작해서 7년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여섯째 인을 열고 그 다음 일곱째 인을 여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무지 보물을 쫓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쌍함이 논리정연하게 구조화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계시록입니다. 혹자는 계시록의 내용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묵시문학적이고 황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의 신앙을 선전자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지금부터 과거 역사적인 것을 믿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시는 예언적인 것을 미리 알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선지·선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승리하게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하는 말씀입니다.

0일곱째 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다'

일곱째 인을 여시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는데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정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7년 환란을 만드셨고 그 환란 중에 하신 일들을 미리 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전에 정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세워져 쓰시는 종들에게 선지자적으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날에 순교 당하여 재림 주님의 신부될 자들을 신부되게 하고, 휴거될 자들은 예비처에서 보호양육을 받다가 휴거하게 하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미리 말씀을 다 해 놓은 다음 환란 시작되기 전에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24:25에 예수님이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으므로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이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적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폭풍전야와 같이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정적과 같고, 또 사람이 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 화제에 집중시키기 위한 정적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과 사건들의 예는 그림자이고 하나님도 큰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정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말라기서로 끝났습니다. 구약의 끝인 말라기서와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조용하게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하

고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계8:1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약 반 시간쯤'은 정확히 30분이 아니라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이 '약 반 시간쯤'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400년은 안 걸려도 은혜시대가 끝나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 후에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조용한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약 반 시간쯤'입니다.

02절)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어린양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 부는 임무를 주시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곱 나팔을 받는 천사가 계시된 것은 그 천사들이 이미 나팔을 받을 자들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어린양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일꾼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타락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교회들을 묶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듯이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그때에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고 순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정적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과 사건들의 예는 그림자이고 하나님도 큰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정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하

0순교한 자들이 주 재림 때 첫 번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천 년간 부활체로서 통치한다

3절) 다른 한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4절)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3-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많은 향을 받은 금향로의 연기와 성도의 기도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계시록이 자기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Key인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향은 계5:8-10에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계5:8에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은 본문 3-4절의 금향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5:8에 금호리병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했지만 본문 3-4절의 성도들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라.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라고 하니라" (계5:9-10)

계5:8절에 금호리병의 향연은 어떤 성도들의 것이며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계5:9-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향로의 향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계20:4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순교한 자들이 주 재림 때 첫 번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천 년간 부활체로서 통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환란 날에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금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서 순교할 성도들의 기도요, 환란 날에 쓰임 받을 이마에 인침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의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

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부러 환란을 만드시고 우리로 그 환란 날에 순교시키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 하셔서 이 땅에 세우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로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 환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금향로의 향연입니다. 또 그 환란을 통하여 우리를 순교시키시는 것과 철권관세를 주셔서 예언케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기쁘고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금향로의 향연이고 그와 같은 것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나? 이 진리로 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외에는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중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장관이 되었을 때나 왕 다음의 서열인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그는 사자 굴에 던져 넣는 왕명이 내려졌을 때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단6:10).

0주님 재림하실 때 '금향로의 향'으로 기도한 사람들과 '성도들의 기도'로 기도한 사람들만 재림 주를 맞이한다

한편 본문8:3-4절의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과 일치되는 기도입니다. 이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비처에 갈 자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환란 날에 배도할 자들의 기도는 본문의 '성도들의 기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복 받고 출세하게 해 달라는 기도, 육신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환란 날에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는 '금향로의 향'으로 기도한 사람들과 '성도들의 기도'로 기도한 사람들만 재림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부류의 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향로의 기도'로 기도한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체가 되어 그분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성도의 기도'로 기도한 자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큰 복과 천년왕국에서 혈육의 몸인 백성으로서 사는 자가 됩니다. 금촛대 교회에 속한 자의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코너 -245-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정전라 총회장/한기보협신대학원장

(마1:18-25)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성탄절과 또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며 각종 이벤트 실시 등으로 바쁘고 떠들썩한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와 계신 그 순간이 성탄이 내게 이뤄진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은 아담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 잉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죄가 없으신 분임을 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심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대로 확증한 것입니다(요10:36).

그의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심을 뜻 합니다. 즉 예수가 그토록 기다려 온 유대인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방인 중에도 자기 백성들이 있으니 그 몸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영원속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보혈로써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흘리 피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때 다 믿고 그를 찬양합니다(행13:48).

이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 사 7장, 8장, 9장에서 임마누엘을 예언했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리라. 그 때는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사8:6-10).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으리라(사9:6).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어 자기 백성들을 통치 하십니다.

이를 요1:14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심령속에, 우리 교회안에, 이 온 세계의 구원 역사하심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 예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 이십니다. 즉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히7:21-22). 대제사장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축 2020 謹賀新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 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의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명만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파트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명동수 총회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장터로 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시금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9:00
심야적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한기보회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0, 701호(내선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법제화 반대 특강 가져

국내 에이즈 환자 7천945명의 치료비 전액 무상지급액 3조700억 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교회에서 14층에서 진행되어 1부 예배, 2부 특강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제자총회장 장성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오현관 목사(오순절총회 총무)가 기도문, 성경봉독(요 8:31 - 32)에 박은주 목사(세계선교연합 총무), 특송에 작은교회연합 찬양단, 박승주 목사(WCC한국대위원장)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제자의 말씀을 선포했다.

봉헌찬양에 그레이스 찬양단, 봉헌기도에 정수복 목사, 격려사에 박영호 목사(한국기독교문서선교회 회장), 인사의 말씀에 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광고에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의 축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특강에는 박승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오현관 목사(예장 호헌총회 사무총장)가 기도를, 그레이스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특강에 나선 김지연 교수(영남신학



대학교)는 "글로벌 성 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김지연 교수는 현재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열강하고 이로 인한 각종 간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남성 간 성행위와 항문 주변 질환은 물론 장 질환에 대한 손상을 설명하고, 요약한다면 항문 및 주변조직의 손상, 누균가는 많이 버리고 싶은 단어, 게이 장 증후군, 항문암,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에 등장한 희귀 독성 대장균으로 인한 고통을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남성 간 성행위와 이질에 대해 첫째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이질에 대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이질균의 등장을 강의하고 아울러 남성 간 성행위와 간염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해서 제목을 말한다면 각종 간염에 노출되는 남성 동성애자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 다루었다.

게다가 국내 에이즈와 남성 간 성행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말하면서 현재 에이즈 치료비 외에 에이

즈 환자의 조기 사망 등에 사회적 비용이 200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11일 에이즈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제 7차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날 서울대 양병민 교수는 에이즈 환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즉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시 의료인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했다. "에이즈 환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체 국민전비 8%를 차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환자가 발병한 지 3.6년 후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환자 1명이 평균 3억8천800만 원의 생산 가능액을 기회비용으로 잃고 있고, 유엔 에이즈 퇴치 계획(UNAIDS)의 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국내 에이즈 환자 수 7천945명에 대해 적용하면 3조700억 원으로 이는 국민전비 8%에 달하는 액수라고 한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20~30대 감염자들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간접비용의 증가로 향후 에이즈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했다. 한편 국내 양질의 에이즈 치료에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HIV 감염인 진료비 중 90%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의 본인부담금도 보건소를 통해 전액 지원받고 있다.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90%의 진료비 외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나머지 10% 진료비 중 절반 정도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3조700억 원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낸 보험금이 이렇게 세고 있다는 증거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에서 WCC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아갈 것이며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법제화 반대 등을 한국기독교보수교단에 소속된 교단과 기관은 뜻을 같이하여 적극 저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장한국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의 축도로 2부 특강 순서를 마무리했다.

정기남 기자 jtpress@hanmail.net

꿈너머꿈교회 2019년 성탄 축하 찬양제 열어

꿈너머꿈교회 주최, 문화제 주관



경기도 서동탄로 61번길 꿈너머꿈교회 (담임 김현수 목사)의 주최, 문화부 주관으로 '2019 성탄 축하 찬양제'를 지난 12월 22일(주일) 오후 3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다. 이승현 집사, 장수에 집사의 명 사회로 진행된 찬양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숨은 실력과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승화되었다.

대회장인 김현수 목사는 이사가 43:21절 말씀을 인용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금번 찬양제야말로 이 때까지 드러진 모든 예배와 경배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



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등단한 김영혁, 이미지(부부)는 결혼이라는 찬양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주영현 목사는 아코디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연주하고, "오 거룩한 밤"을 독창했다. 또한 우보선, 이익성 집사가 "복지는 소년"을 키즈처치(아동부) 5명의 어린이가 곱타연주로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이어서 이혁재, 광미라, 이혜정, 김정일, 김병준, 양병권 등 5명의 로엘 드림팀은 "나누어 주어요"를 연주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또한 김영진 목사(수도노회)는 "나의 아버지"를 독창하고, 김영진

목사 부부가 두오프로 "사랑"을 열창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김범서 학생이 바이올린으로 두곡의 캐럴을 연주한 후 국악인 이정에 목사의 찬양을 끝으로 꿈너머꿈교회(김현수 목사)에서 주최하고 문화부 주관으로 열린 찬양제가 막을 내렸다.

이날 문화부 위원장 김현수 목사는 찬양 축제에 참가하여 열창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한 출연진들을 격려하고 심사평에 이어 1등에서 4등까지 확정된 자를 호명하여 상금과 선물을 수상케 하고 주기토문으로 문화부 주관 성탄축하 찬양제를 2020년을 기약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마쳤다.

"개그맨 유세운, 가족과 함께 결식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진행"

지난 22일(일), 개그맨 유세운과 아들 유민하 군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식료품키트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지난 12월 22일(일), 개그맨 유세운은 아들 유민하 군과 함께 결식아동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유세운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가족 및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결식아동에게 전달할 식료품키트를 만들고, 직접 편지를 쓰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세운은 "최근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함께 마트에서 빵과 사과를 훔친 현대판 장발장' 기사를 보고 아직도 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며 "아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피고 싶어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충관 지파운데이션 대표로는 "실제로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



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번에 진행한 식료품키트를 어려움에 놓인 아동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나눔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식료품키트는 100여명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세운은 아들과 함께 지난 3월 국내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제개발협력NGO이며, 국내 아동·청소년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남부보라미 어린이집 원아 선물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오홍균)는 2019. 12. 20.(금) 교정위원 이광오 등 5명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오홍균 소장 및 교정위원들은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녀들도 함께 보육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교정시설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축 202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20 번성표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담임목사 박정균 (웨신 총회장)
Rev.(D.Min) Park Jeong Kyun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축 202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2020 표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 (요 20:21)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인식
사무장: 안종기, 허성준, 함영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3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담임목사: 이창범
신앙심화/교육협력
예배심화/목회협력
지저스타임즈
안락부흥사업위원회

비율신교단화인원인한목사등교원총회의
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대음 2차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알림: 목양칼럼은 2020 신년 특집기사로 인해 게재하지 못하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www.jtntv.kr) CJTN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신년사>

올해는 함께 살고 같이 구함 받는 해가 되기를



유만석 목사
한국문화예술회 대표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움을 구하고 건강한 변화를 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가운데 1위가 공명지조(公命之鳥)로, 함께 죽는다는 것이었다. 2위는 어목혼주(魚目混珠)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를 말한다. 또 3위는 반근착절(盤根錯節)로, 뿌리가 많고 마디가 이리저리 얽혀있다는 것으로, 역시 혼잡을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준도 없고, 상식도 사라지고, 마지노선도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초갈등과 초긴장에 순리를 따르지 않고, 많은 일들이 역류(逆流)하는 듯한 모습을 본다.

올해에는 4월에 총선이 있어 독행기시(獨行其是)가 일어날 소지가 더 커졌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한 대립의 시대가 되기 않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이런 독선과 대립은 공멸로 갈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공동운명체로 살아가고 있다.

이슈 우화에 보면, 개구리와 쥐가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쥐를 자신의 발에다 묶고 마치 선행이라도 하듯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수

영을 못하는 쥐는 곧 익사하고 말았다. 죽은 쥐의 시체를 보고 공중에서 매가 날개에 낚아 내려와 낚아채니, 쥐의 발목에 묶여 있던 개구리도 같이 매의 발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는 올해, 함께 살고, 같이 구함 받는 공명지조(公命之鳥)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설프고, 분열을 조장하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와 섭리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우선이라면,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공명지조(公命之鳥)가 아니겠는가?

올고 그 큰 소리에 관계없이, 상생과 화합의 목소리만 외치는 이들도 완전하

지 못하며, 반드시 나만 옳다는 독선도 문제이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일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

교회들도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화합과 선행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여, 주님 나라 확장과 의를 이뤄 가는데 하나가 되며,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나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못 같이 낡아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나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102:25~27)



함께한 분을 위한 마지막 약속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국 의전 협동조합 전국 8개 본부 운영 출동 2시간 이내

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품검색 :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상품검색 :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상품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 행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국 대표번호 : 1644-2542

단순장례 : 1,200,000원
기초장례 : 2,100,000원
고급장례 : 2,900,000원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이웃
VIP Premium CARD SN: KCS-838373378
회원님 초대서비스카드
본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복리후생시스템 10~50%까지 할인서비스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문화예술회 대표
www.koreansj.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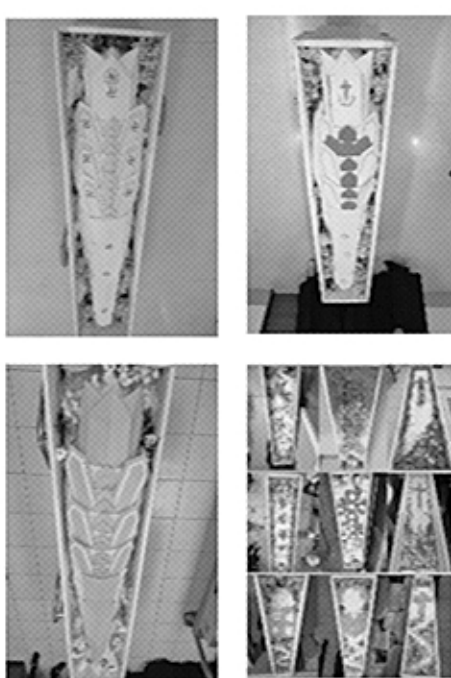
VIP 선택형 장례서비스 상품
단순장례: 1,200,000 / 기본장례: 2,100,000 / 고급장례: 2,900,000

필요시 선택항목

1. 수의준비	30만원	6. 용품미사용	30만원
2. 제단장식	20만원	7. 도우미 4명	40만원
3. 남자상복 4벌	20만원	8. 리무진 미사용	30만원
4. 여자상복 5벌	10만원	9. 장의버스 미사용	30만원
5. 관 미사용	20만원		

60만원의 혜택
전문장례지도사, 빈소용품, 헌화 30송이, 화장식 봉안함, 매장시 횡대, 관내 이송, 제관, 음향, 음향 보조인력

무료상담 전국 1644-2542 ※ 상품 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 행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60만원의 혜택
✓ 전문장례지도사
✓ 빈소 용품
✓ 헌화 30송이
✓ 화장식 봉안함
✓ 매장시 횡대
✓ 관내 이송
✓ 염습 보조인력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1,100,000만원 상품
✓ 1.수의 준비 30만원
✓ 5.관 미사용 20만원
✓ 6.입관 용품 30만원
✓ 9.장의 버스 30만원

필요시 선택 사용
✓ 1.도우미 1명 10만원
✓ 2.남자 상복 1벌 3만원
✓ 3.와이셔츠, 넥타이 2만원
✓ 4.여자 상복 1벌 2만원
✓ 5.고급 리무진 30만원

※ 상품 사용시 선택요령
✓ 1,기본 장례 1,100,000만원
✓ 2,3일장 이용 시 60만원에 혜택
✓ 3,필요시 상품 필요량만큼 선택

상품검색 : 밴드 : 한국의전협동조합

상품검색 : NAVER : 한국의전협동조합

상품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 행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국 대표번호 : 1644-2542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 서사목사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 |

필자가 보는 서 목사는 성령으로 일하고 있다



권호덕 교수

서사라 목사

1) 서사라 목사는 그의 모든 발언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는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서 목사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서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해석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성경구절의 내용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천국에서 주님이나 믿음의 선진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런 점에서 천국으로 다녀온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기행문식으로 보고하는 것 같다.

2) 기존 교회 풍토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의 주장과 다를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단죄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다. 왜곡된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오류를 범해왔다. 이들은 사실상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데서는 신학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신학 발전을 위해 보다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어떤 무엇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생리는 교회 안에 전개되는 새로운 정황을 보면서 끊임 없는 신학적인 반성을 하며 성도들을 위한 바른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있다. 선입관에 얽매어 일방적인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자세는 결국 이념적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목사의 특이한 주장을 평가할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서 목사의 주장은 확실히 기존 교회에서는 충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발전의 한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매우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특별한 사건 때문에 부각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중세는 공포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팽배하여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 또는 이산청의 진리를 발굴할 수 없었다. 그

런데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이 위대한 사상이 규명된 것이다. 기존의 성경해석이나 기존 신학으로만 만족한다면 신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서 목사의 증언들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어떤 신학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틀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이념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세대주의 전반기설, 역사적 전반기설, 후천년기설, 그리고 무천년기설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틀로 신학을 형성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나아가 다른 주장을 비판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기 한계를 지나고 있다. 세대주의가 7세대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연약신학과는 크게 충돌된다. 후천년기설은 19세기 이



성낙관주의와 연합하여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과 무천년기설은 문자적 천년왕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둘은 첫째 부활을 두고 일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둘 다 이 세상이 불타고 체질이 녹을 때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 '어디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서 목사는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대답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5) 기존 개신교 신학은 성경이라는 문헌을 그 주된 자료로 취급한다. 개혁신학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허용될까? 아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학은 우선 성경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고 충격을

준다면, 이런 체험은 교회와 신학 발전에 큰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경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신학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전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자기 왕국으로 창조하시고 건설하셨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자리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서 목사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천국과 지옥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전하는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목적이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서 목사의 저서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녀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간파할 것이다. 서 목사 저서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런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필자가 보기엔 서 목사는 성령으로 일하고 있다. 만일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그 모든 사역을 부인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성령 회개 죄를 범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특별한 발언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 평가 할 경우에는 기존 성경해석에 대한 성찰 있는 반성(反省) 내지 반추(反芻)가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진다. 사실 하나의 신학이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전의 주석(註釋)이 나중에는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천년기설, 후천년기설, 무천년기설 등등.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나아가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다. 서 목사의 증언과 발언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 중에서 발췌)

권호덕 교수약력

충선대학교 신학과(BA) 충선대학교 신대원(M div. eq)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석사(Mag. theol.)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박사(PhD, theol) 뮌스터대학교 개혁 및 목회박사대 조직신학 교수직임은 탁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역임 현재 콜로라도주립대 연구소 소장 (저서) 서사라 목사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금보다 더 귀한 것 3가지 시편 19:7~10절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곳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물질적인 것에 가치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금을 최고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K.마르크스) / 금은 원래 화폐가 아니지만, 화폐는 원래 금이다. 금은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나 화폐로 통용되어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지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금을 많이 소유하면 부강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려 한다. 이와 같이 금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 (시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보배'라고, 시19:7~10에서 '여호와와 말씀' 즉 율법, 증거, 계명, 교훈, 경외하는 도, 규례는 완전하며, 확실하며, 정직, 순결하여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 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보배이다. 1)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시 19:7에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뱀전 1:23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에 의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므로 '금보다' 귀하다.

2) 여러서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시 19:7에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3)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시 19:8에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라고 하였다. 정직하다는 것은 바르다. 곧다. 는 말이다. 히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다. 렘 15:16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하였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해 주

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시 19:8에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며, (깨끗하다) 눈을(영혼의 눈) 밝게 하도다. 말씀으로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마5:8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렘 7:55에 스테반이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구레'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시 19:9에 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롭고,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된다는 뜻이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다. 애청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II.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다.

킹-제임스 '너희 믿음의 사면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불같은 시험을 받아, 연단 되어진 믿음을, 비신앙적인 요소는 제거 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므로 불속에서 제련된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1)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 11:25~2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고 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살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2)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렘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킹-제임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믿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

(렘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했다 이처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보배'이다. 믿음! 히 11:1=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히 11:6=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며, 믿음으로 휴거된다. 약 1:6에 '믿음이 없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III.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보배이다.

마 16:26에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했다.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란 것을 말씀하신다. 킹-제임스 '사람이 온 세상을 잃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서 온 세계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온 세계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니, 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란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것 세가지.

1/ 하나님의 말씀! 2/ 믿음! 3/ 생명. 이 세가지가 함께 기록된 말씀이 요 20:31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① 말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② 믿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③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1)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3) 영원히 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삼고하고 영적인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라냐! 오직 예수 영광! 감사합니다.

정가남 목사
발행인

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인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표어 : 그 한사람이 되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예/배/시/간

대예배 1부 : 오전 9시30분 2부 :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에배 주일학교 : 오전 11시
청년 : 대학부 오후 2시
중 고등부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예기도회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수요일은 제외)

소진우 목사 특별사역
열방부흥선교회협의회 총재
지저스타임즈 사장
JTNTV가정예배 칼럼리스트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02)934-1232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JIN WOO



2020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뿌리깊은 죄성

성경: 시편 58:2-5 찬송가 268장

인간은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창8:21). 다윗 또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시51:5). 이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목: 보듬하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58:6-9 찬송가 408장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보듬을 호소합니다. 그는 그들의 입에서 어금니를 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의인을 물어뜯고자 하는 어금니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구하며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일 갈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징벌로 그들의 모든 꺾박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시편 1:6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이다”

제목: 하나님의 형상

성경: 시편 58:10-11 찬송가 343장

본문의 교훈은 첫째, 우리는 도덕성을 중요시하며 바르고 선하여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정직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명심하

고 철저히 주의해야 하며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 보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목: 환난과 핍박

성경: 시편 59:1-5 찬송가 336장

본문에서 다윗이 받는 핍박은 그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어서 그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종종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해, 주님으로 인해 비방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성경: 시편 59:6-8 찬송가 420장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밀한 악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며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삼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편

성경: 시편 59:9-10 찬송가 342장

다윗은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원수들의 보응 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만나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징벌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깊이 주를 만나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제목: 방패

성경: 시편 59:11-13 찬송가 93장

다윗은 인간 원수들과의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방패 되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군인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칼이나 창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를 잘 사용하는 군인은 안전이 보장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튼튼한 방패이십니다. 든든한 방패가 있으면 어떠한 전쟁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목: 찬송받으실 하나님

성경: 시편 59:14-17 찬송가 197장

악인들에게는 불만과 불평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밤 같은 고난의 날들에는 성도에게도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며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해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회복과 승리

성경: 시편 60:1-5 찬송가 419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깃발을 주소서”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파하고 흠여진 자들을 모으시고 바른 길로 진행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목: 투구

성경: 시편 60:6-8 찬송가 371장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투구’라는 원어는 ‘보호물, 보호자’라는 뜻으로 ‘내 머리의 투구’라는 말은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의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규’라는 원어는 ‘나의 법을 배우는 자’라는 뜻으로 ‘지도자’나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목: 승리의 원인

성경: 시편 60:9-10 찬송가 351장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겪은 패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그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도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효와 능력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목: 전쟁의 승패

성경: 시편 60:11-12 찬송가 353장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환난당한 자를 도우시고 구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을 버리시고 흠으십니다. 재앙은 대체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원수들을 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도움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목: 기도할 대상

성경: 시편 61:1-2 찬송가 364장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놀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악하다’는 원어는 ‘연약하다, 기진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지치고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실로부터 평안한 곳으로의 구출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앞 뒤가 막힌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대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큰 특권이며 큰 복입니다.

제목: 피난처

성경: 시편 61:3-4 찬송가 70장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자를 해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전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해”

성경 히 12: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지저스타임즈를 구독해주고 JTNTV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성도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신 10:12).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수 24:14).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정녕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수 24:21, 24)고 대답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은?

1)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 10:12 “이שראל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

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시 138: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딤후 1:3.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상 28:9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이다” 슬 3:9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대상 29:19 “정성된 마음으로” 대상 29:9 “성심으로”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수 24:14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삼상 12: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고 말씀합니다.

3) 하나님을 성품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 10:12 “이שראל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였습니다. 행 26:7 “바나스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롬 12:11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행 20:19 “겸손한 성품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4)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

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상 28:9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이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5)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눅 8:3절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리라”고 했다. 고후 9: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상 29: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라고 하였습니다.

6)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눅 2:37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다. 행 13:2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하였습니다. 눅 1: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했다. 행 13:36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7)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롬 1:9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롬 7: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였습니다. 눅 1:76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외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요 4:23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2020년 한해가 되어 영적 회복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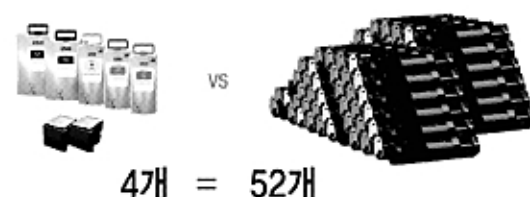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250매)
(550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2020 신년하례 공고

“2020 謹賀新年”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9)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

서기



박송주 목사

총무



곽영민 목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

보수신앙을 위한 보수하는 해
3생운동...

생명운동(말씀운동)

생기운동(성령운동)

생활운동(생활실천운동)

일시: 2020년 1월 7일 오전 11시

장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0(연지동) TEL(02) 708-3131

한기보협은 2020년에도 36개 교단과 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WCC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법제화
반대 등을 적극 저지해 나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사) 한기보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25, 5층(화곡동, 호용빌딩) 전화: 02) 2608-2190, 2198
http://www.hankibo.co.kr FAX: 02) 2608-2191 Email: hankibo@naver.com

축 2020 謹賀新年 웨신총회 신년하례 공고

주제: “악함을 강함으로” (눅 19:1~10절)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총회장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부총회장

정순옥 목사
미래선교회

부총회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부총회장

마순억 목사
사랑하는교회

총무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서기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부서기

황봉기 목사
사랑제일교회

회의록서기

김기철 목사
빛가람수양관

회계

이태균 목사
나누리교회

감사

이이중 목사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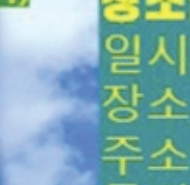
감사

이동근 목사
하은교회

지도위원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지도위원(감사)

이명통 목사
빛교회

장소안내

일시: 2020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꿈너머꿈교회(부총회장 김현수 목사) 010-7667-4719

주소: 경기도 화성시 능동588-3 전화: 031-267-0690

문의: 총회장 010-8476-5282, 총무 010-6878-1324

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010-8476-5282
총회장 박정균 목사

축 2020 謹賀新年 꿈너머꿈교회

교회표어: 오 놀라운 축제의 해

Oh! The Year of Amazing Festivals.



담임목사 김현수



하나님 주신 복 감사하여
빛과 소금 되어 살게 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국환송 절차와 실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성도된 자들은 죽음의 몸까지도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인으로서 성도다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가족들은 (고인)자는 이를 하나님 보좌로 보내드리는 손색없는 성경적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지막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 정리를 잘 해야 한다. 이에 천국 가는 하늘 길에 대한 유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천국으로 향하는 선교와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꿈너머꿈교회 주소: (445-320) 동탄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능동588-3
행사 및 교회예배 문의: 031-267-0690 담임목사: 김현수 (010-7667-4719) www.overdreams.org